

Transcendence of *Yī zhě*(一者) and Publicity in Religious Education

Sungjun Yeum¹, Youngjon Kim^{2*}

^{1,2}Wonkwang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rge the restoration of religious transcendence as a premise to restore the publicity of religion and to recall the transcendence and absoluteness of the '*Yī zhě*(一者)' that we have forgotten.

CONTENTS We reviewed how the '*Yī zhě*' of thought history, which has lasted since ancient times, has been forgotten in our society since modern times. And we discussed how we can respond to the public issues by recalling '*Yī zhě*' itself. It also emphasizes the educational approaches to return to its fundamentality along with reflecting on the phenomenon in which the role of religion has been denied

RESULTS First, we confirmed that current 'the publicity' concept which individual religious has performed has been used as the collective "You" or "Us" in relative standpoint. This approach to 'the publicity' has a risk for the religion to be marginalized in social system according to the power dynamic. Second, in order to present meaningful discourse on the public issues,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undifferentiated absolute, '*Yī zhě*' on the premise of absoluteness and transcendence. Religious reflection is needed. Third, in order to secure the absolute, *Yī zhě* in religious publici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additional methodologies for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publicity of religion, oblivion of '*Yī zhě*(一者)', restoration of publicity, religious educ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Wonkwang University's intramural research funds for the academic year of 2021.

* **Corresponding to** Youngjo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E-mail : youngjonkim77@wku.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일자(一者)의 초월성과 종교교육의 공공성

염승준¹, 김영전²

¹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부교수, ²원광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 부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종교적 초월성의 회복을 촉구하고 첫 단계로 그동안 우리가 망각해 왔던 ‘일자(一者)’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상기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종교와 철학사상사의 ‘일자(一者)’가 근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잊혔는지 살펴보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종교의 역할이 부정당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형이상학적 근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교육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회학 또는 종교사회학 담론에서 공공성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대립이 불가피한 이원화된 상태의 상대적 개념의 집단화된 타자성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은 힘과 체제의 역학 논리에 빠져 실제 사회체제의 주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둘째, 종교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공공의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절대성과 초월성을 전제로 한 미분화된 통일체로서 절대성과 초월성을 특징으로 갖는 일자(一者)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인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성과를 기반으로 한 종교계의 교육적 접근에 대한 추가적이 논의가 요구된다. 미분화된 일자(一者)가 교육의 내용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법론적 탐색이 필요하다.

주제어 종교의 공공성, 일자의 망각, 공공성 회복, 공공성 교육

I. 서 론

국내에서 논의되는 종교와 공공성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종교의 사회참여를 공공성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버마스, 베버 그리고 마르크스와 같은 서양사상과 철학을 이론적 틀로 삼아 공공성 개념을 해석하고, 이를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비하면서 종교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참여=공공성’의 개념적 도식이 지배적이었다. 종단별로는 교리적 해석을 통해 개인으로서 ‘나’가 아닌 조직이나 우리 혹은 시민 사회 국가를 ‘공공’으로 보고 이에 기여하는 활동의 참여와 이와 관련된 교리적 해석이 ‘공공성’에 기반을 둔 종교교육의 틀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형태는 지난 30여 년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과기반교육(outcome-based education)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확인 가능한 성취 기준을 미리 설정한 성과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되면서 종교교육에서도 공공성을 ‘사회적 기여’, ‘종교인의 책무’ 혹은 ‘종교인의 직업적 전문성’ 영역의 하나의 역량으로 이해되는 형편이다. 실제 종교와 사상의 학문과 학문의 연구방법이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틀에서 이해되는 지금의 형태를 생각하면 이러한 접근은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 종교가 갖는 초월성과 절대성을 생각한다면 목표중심, 사회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의 공공성은 종교 조직이나 개인의 활동 내용에만 집중할 뿐, 종교의 근원적 본체와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염승준은 종교의 ‘공공성’ 개념의 연구에서 종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종교적 초월성과 절대성을 특징으로 갖는 일자(一者)에 주목한 바 있다. 형이상자(形而上者)로서 종교의 초월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私)’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종교의 공적(公的) 활동은 사회정치적 역할 관계 속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 역학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성 담론뿐만 아니라 일부 종교의 공공성을 표방한 실천적 활동과 운동도 특정한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따르는 공공성 개념과 공적 활동에 불가피한 상대성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종단의 폐쇄성 때문에 공공의 이름으로 결국 공공성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Yeum, 2017).

본 연구는 종교적 초월성의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그동안 우리가 망각해 왔던 일자(一者)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상기(想起)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종교와 철학사상의 ‘일자(一者)’가 근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잊혔는지 살펴보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공공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종교의 역할이 부정당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형이상학적 근원으로 되돌아가려는 교육의 움직임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II. 종교적 초월성과 보편성, '일자(一者)'의 망각

1. 근대 이전 일자(一者)의 절대성과 초월성

근대 이후 우리 사회는 형이상학적 초월성과 절대성을 특징으로 갖는 일자(一者)를 망각해왔다. 일자(一者), 신(神), 태극(太極), 무극(無極), 도(道)와 같이 각각 그 이름을 달리하는 동·서양의 형이상자(形而上者)는 본체와 현상의 관계, 즉 일자(一者)와 다자(多者), 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다의적(多義的) 방식이다. 그리고 그 다의성은 인류 철학과 사상의 역사를 형성하기에 그 관계성을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해의 명료화를 위해서 도식화를 한다면, 공통적으로 형이상자인 일자(一者)는 현상세계의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그리고 자아와 세계의 이원적(二元的)이고 대대적(待對的) 관계 너머의 미분화된 통일체로서 이원적 대립 구도를 넘어선 절대성과 초월성을 갖는다.

한자경은 근대 초기까지 여러 방식의 '일자(一者)'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일자(一者)'의 사유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플라톤 철학의 선의 이데아, 플로티누스(Plotinus)의 '일자', 사유적 실체와 연장적 실체를 매개하는 통일자로서의 데카르트의 '성실한 신',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를 신(神)이라는 실체의 양태와 변용으로 설명한 스피노자의 신(神) 모두 일체의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것 너머의 절대성과 초월성을 특징으로 갖는 '일자(一者)'였다(Han, 2009: 142-43). 동양사상사에서 현상세계가 실체가 아닌 가상(假想)임을 깨닫고 일체의 차별과 경계 너머 현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체로서의 불교의 공(空), 현상세계의 일체의 상대적(相對的)이고 대대적(待對的)인 것을 넘어선 유교의 무극(無極)과 태극(太極) 그리고 "만물의 차별상을 넘어서서 모든 고정되고 실체화된 차별상을 넘어서서 그 내면에 유동하는 기(氣)" 모두 절대성을 가진 '일자(一者)'이다. 그리고 '일자(一者)'의 사유적 실체에서 공(公)은 사(私)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공(公)이 아닌 일체의 상대적(相對的)이고 대대적(對待的)인 것 너머의 근원과 '실재'로서의 공(空) 그리고 태극이나 무극의 연속선 상의 공(公)이다.

일자(一者)는 근·현대 이후 인류 역사에서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세 17, 18세기 근대 초기의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칸트 그리고 헤겔과 같은 관념론자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 이후 차차 인류에게 잊혀져 인간의 자기인식과 자연과 대상의 인식은 이원화가 되었다. 이를 근대세계의 이중화라고 한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으로 이원화 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통일체로서의 근원과 실재를 망각한 이원화된 사회에서는 양자 모두가 일자의 양태이자 변용인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 그리고 주관과 객관 중에서 정신보다는 물질이, 주체보다는 객체가, 주관보다는 객관이 더 본질적인 것이 되었다. 근원자를 추구하거나

근원을 닦아가고자 하는 정신과 주체의 노력도 점차 상실되어가며 물질과 자본, 이윤추구가 삶의 지향점이 된 것이다. 주객 분별 너머의 일자뿐만 아니라 일자의 양태인 정신 또는 영혼조차도 근·현대인들 삶의 전 영역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 걸쳐 규제적 원리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일자(一者)의 망각과 근대성

근대 이후 일자의 망각은 단지 개념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일자가 망각된 세계에서는 현상세계의 일체의 상대적(相對的)이고 대대적(對待的)인 존재가 그 자체 실체화된다. 존재의 근원을 망각함으로써 존재는 근원자로서의 일자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비실체적인 것이라는 통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실재’로서의 공(空)의 공(公)을 잊고, 사(私)의 상대로서의 공(公) 만을 끌어안고 있는 형편이다.

근대 이후 일자의 망각은 약간의 내용과 조만(早晚)의 차이가 있으나 여러 문헌에서 동일하게 지적된다. 몽배원은 『성리학의 개념들』에서 송대 이전부터 북송시대, 남송시대, 원명시대, 명말 정초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리(理)와 기(氣), 태극(太極)과 음양(陰陽), 도(道)와 기(氣) 등의 핵심개념들의 의미의 변천과 변용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중국 사상계에서도 근대에 이르러 일자인 무극과 태극 그리고 리가 갖는 절대성과 초월성의 특징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Meng, 2011).

일본 정치학계 권위자 마루야마마사오(丸山眞男)는 『日本政治思想史研究』에서 일본 유교 전통의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내성과 외왕의 분리를 일본 근대정치의 시작으로 본다. 유학자들이 수신(修身)의 수행을 통해 태극과 무극의 경지에 합일하여 치국(治國)과 평천하(平天下)를 실현하고자 한 것을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부인하면서, 일본 정치사상사에서 태극과 무극의 망각, 그리고 정치와의 분리를 일본의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 짓는 척도로 보고 있다(Maruyama, 2011). 그의 이러한 시각은 근·현대 동시대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일본의 근대 정치에서 이전의 존재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중심이었던 일자로서의 태극을 기반으로 한 ‘천인합일(天人合一)’ 혹은 ‘만물일체(萬物一體)’ 정신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삶의 전 영역과 분리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사상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반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형이하자적 차원에 집중해왔다. 자연을 이윤추구를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만물일체의 정신은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나 혹은 세상을 상호 대립적인 이원적 실체로 인식하는 방식, 즉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을 근대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적으로 인식하면서, 일상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의 대상인 객관을 대립적이고 이원적인 관계에 국한하여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영역은 주객으로 이원화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통일체로서의 형이상자를 전근대적인 것으로 평가절하 했으며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지켜야 할 전통과의 단절이 근대화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한반도의 사상가는 근대 사상가로 추앙받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이하 다산)이다. 다산은 전통 유교의 태극과 무극의 절대성과 초월성 그리고 그것에 합일하기 위한 유학자들의 천일합일(天人合一)을 위한 수양과 만물일체(萬物一切)의 경지를 부정하였다. 한국의 기독교계의 학자들이 다산을 특히 추앙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이다. 금장태는 『도와 덕: 다산과 오규 소라의 <중용> · <대학> 해석』에서 다산과 오규 소라의 유교 경전 해석의 유사성을 간파한다(Kum, 2004). 두 사상가는 전통 유학자들과 달리 인간이 경(敬)과 궁리(窮理)를 통해 천인합일을 달성하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의 조선 성리학의 유교 전통사상의 맥(脈)으로부터 이탈된 다산 사상은 자본주의체제로의 적응을 최고의 과제 인식했던 근대적 관점에서 ‘근대사상의 성취’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인수공통 감염으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서 자연과 인간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한 그의 사상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우리의 전통 사상이 고수했던 무기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萬物)이 동일체(同一體)일 수 있다는 동양 종교와 철학의 통찰과 관점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소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류의 사상사에서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과의 단절과 존재의 종적(種的) 차이를 강조한 다산의 사상이 현재적 시각에서 어떠한 한계를 갖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현대 사상사에서 일자의 초월성과 절대성 또는 보편성에 대한 망각이 지속 되면서, 특히 30여 년 전부터 한국의 지성계를 휩쓴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초월, 절대 그리고 보편과 같은 개념이 특수성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독단적인 것인 양 치부되어 부정되고 비판받아 왔다. 과학적 사고와 실증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어 버린 자본주의체제에서 형이상자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종교는 공적 담론에서 사상과 담론의 발신처의 역할을 상실했고 소수에 의해 회자(膾炙)되는 초월성과 절대성은 단지 실천과 운동과 분리된 공허하고 이론적인 난해하고 철학적 개념으로 실추됐으며 개별 종교인의 훈화(訓話)로만 치부되었다. 결국 종단별로 이루어지는 종교 교육은 교리와 교단사의 내용전달, 해당 교리를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단기 수련 프로그램, 종교가 지향하는 교법의 특정 용어를 앞세운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Ⅲ. 이원적 개념의 공공성 한계

1. 종교적 공공성의 소외와 한계

근·현대에 이르러 일자(一者)가 망각된 동안 이를 대신하여 물리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의 학문적 방법론은 일상을 지배하는 사유가 되었다. 현재 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접근은 물리적 현상세계를 근원으로서의 신적 존재 혹은 형이상자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실재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주의적 실체’로 인식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실체화의 논리’에 의해 ‘사유적 실체’와 ‘연장적 실체’ 너머의 동근원성(同根源性)이 상실되어 정신과 물질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상세계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대립적인 이원적 관계로만 해석되는 한계가 있다.

일자의 동근원성의 통일성, 절대성, 초월성을 상실한 근·현대 현상세계의 객관주의적 실체론적 사유가 근대 이후 경험론과 합리론을 가능하게 하면서 학문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현상세계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험과 합리적 논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월과 근원의 목소리는 소외되기 시작했다.

카를 슈미트는 정치신학(*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Souveränität*)에서 교양인들 사이에 “초월의 이미지가 모두 사라져 비교적 명료한 범신론이나, 모든 형이상학에 대한 적극적인 무관심”이 뚜렷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Schmit, 2010: 71). 17, 18세기와 19세기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신적 초월성이 사라지고, 형이상학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종교의 법적 권위도 함께 상실된다. 실제로 근대화 이후 종교는 사회체제의 주변으로 전락하면서 인류의 정치, 경제 등 삶의 분야에서 규제적 원리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신적 초월성이 인간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삶의 부차적 영역으로 환원되었다.

종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동 혹은 보완으로 사회활동에 영역에 참여하면서 ‘종교의 공적 재등장’ 또는 ‘종교의 탈사유화’의 개념으로 ‘공공성의 회복’의 노력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종교의 사회적 영역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복지나 인권의 보완이나 완충을 위해 일부 역할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작금에는 자본주의체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와 공이 대립하는 사회적 상황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이다. 아동, 복지, 인권 등이 비정부 단체를 통한 사회복지 활동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70년대와 80년대의 개신교의 도시산업선교회, KNCC(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와 개혁불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Yeum, 2017).

그러나 사(私)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공적활동에 매몰된 종교단체의 사회적 활동을 여전히 공(公)의 회복보다는 사의 상대화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조직이나 단체를 통한 공공영역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국가적인 것이 곧 공공적(公共的)이라는 논리로 시장의 이익을 우선하

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대립점에 있고, 국가의 공공성과 체제의 폭력에 저항하는 종교 단체의 사회운동의 이미지는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종교의 공공영역의 진입노력은 이익과 특수 이익의 경계 속에서 이념과 권력의 사회적 관계로 회귀되는 양상이다.

공공성을 표방하는 종교적 투쟁이 사회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현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 이념과 다른 조직 혹은 이념과 대결 구도일 경우 공적 역할과 공공성은 폐쇄적 성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종교의 공적역할은 한편으로는 특수하고 사적인 것으로 전락할 위험을 항상 내포한다(Hong, 2012: 881).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과연 전통적인 종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한 바 있다. 그는 전통적 종교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정책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상 별로 없다고 진단하면서(Harari, 2018: 196-212), 카를 마르크스의 인용하여 전통종교를 ‘걸치장’으로 평가 절하했다. 종교성을 망각한 종교, 사회조직의 하나의 퍼즐로 존재하며, 상대적 개념의 공과 사에 매몰된 현재의 종교에게는 뼈아픈 지적이다.

일자가 망각된 세상은 현상세계의 모든 경계,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경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젠더의 차별, 민족의 정체성을 고정화하고 실체화한다. 더 이상 근원자가 실재이고 현상세계는 그 실재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되는 가상(假想)이며 그림자가 아니다. 현상세계의 모든 경계는 실체화되고, 결국 특정 이데올로기나 물질, 돈이나 권력을 실체화하고 절대화하면서 그 힘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Han, 2019: 9).

상대적인 것 너머의 절대와 초월의 망각으로 인해서 현실세계의 부당한 수직적인 위계질서의 실체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계급의 차별과 배제로 인한 장애와 불평등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고 세계의 불평등은 더 심화된다. 한자경은 이렇게 절대와 초월의 일자를 망각하게 되어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을 대립적인 실체로 이해하는 근대 사유와 근대세계의 특징을 ‘세계의 이중화’라고 표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중화된 근·현대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만물을 위협하고 세계 어디서든 생존이 문제가 되는 별거벗은 현실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 난민, 빈곤, 테러 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Beck, 2013: 265). 울리히 벡은 『자기만의 신: 우리에게 아직 신은 존재할 수 있는가』에서 기후위기와 같은 전지구적 위기에 직면해서 ‘지구적 정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경지가 종교적 배타성까지도 극복해 낼 수 있다면 국경을 넘어 국가적 폐쇄성에 대해 도덕적 통일성을 보장해 줄 가치체계와 신앙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eck, 2013: 136-37).

2. 유교적 이성(理性)을 통한 종교적 공공성의 회복

종교의 초월성과 절대성이 사회학뿐만 아니라 철학 및 종교의 영역에서조차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실증적인 학문이나 담론으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 가능한 것은 이영찬의 ‘유교사회학’에서 언급한 유교적 이성(理性)이다.

이영찬은 사회학의 실증주의 연구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서구적 이성을 비판하고 ‘유교적 이성’, 즉 ‘천인합일(天人合一)’, ‘물아일체(物我一體)’를 목표로 행위의 주체와 객체, 사실과 당위가 분리되지 않는 유교적 이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도(權道)’, ‘시중(時中)’과 같은 개념들이 바로 주객 도식이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Lee, 2011: 43, 48, 188-93).

이영찬의 유교사회학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유교의 ‘리일분수(理一分殊)’ 개념이다. 리는 “천지만물을 종합하여 그 궁극에 있는 것, 곧 근원에 있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이다. 그런데 그 리가 “만물 각각에 내재할 때에는 사물마다 자연히 각각 하나의 분수리(分殊理)를 갖는다(Lee, 2008: 86). 태극과 무극과 같이 절대와 초월의 리(理)는 보편적인 존재로 현상세계의 모든 특수와 개별적인 것의 뿌리가 된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의 모든 개별적인 것들 간의 구분과 차별이 근원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유교의 리일분수의 관점에서 보면, 흄스의 정치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근·현대 국가의 현실 세계에서 국가적인 것이 공이고 개인적인 것이 사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리의 차원에서 전자와 후자 모두 실체가 아닌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계약 국가로서 모든 시민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사적인 차원의 개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압할 수도 없고, 현재 서구 자유주의의 한계가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어떤 개인이고 어떤 자유인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없이 개인의 자유가 공적인 것보다 우선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리일분수의 우주관과 자연관에 의거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경계, 종교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근대에 그토록 강조된 인권 개념까지 포함해서 모래 위에 그어진 선과 같이 바람이 불면 흩어질 수 있는 비실체적인 것이라는 통찰이 없이는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전지구적 연대 그리고 세계시민적 정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극심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현상세계의 차별과 불평등, 계급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지는 수직적인 정치적 위계가 절대와 보편의 차원에서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차별과 위계는 무너뜨릴 수 있다. 현상세계를 지배하는 부당한 계급의 차별과 불평등은 객관적인 질서가 아닌 가상에 불과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자의 초월성과 절대성의 관점은 현실세계의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실천적인 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영찬의 유교 사회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구 근대의 실증주의 그리고 그 실증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한 서구 사회학과 사회학적 방법론에 유교의 형상(形上)과 형하(形下), 체(體)와 용(用), 리(理)와 기(氣), 음양(陰陽) 등의 개념을 통해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 자아와 세계의 대립적인 이원론의 한계 그리고 그로인해 야기되는 근현대 서구문명의 사회적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절대와 무한을 망각한 현대의 서구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이러한 이원론적 인식 구조에서 연구 대상은 연구 주체와 분리된 존재이며, 주체의 일방적인 탐구 대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근·현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의 이원론적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서구 사회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으로 무극과 태극의 절대성과 초월성은 근원이 되는 현실세계와의 관계에 집중하여 주관과 객관, 정신과 물질로 이원화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동근원성으로서의 근원적 존재인 일자에 침잠할 수 있게 된다.

IV. 결론 및 논의

종교의 공공성은 종교조직 혹은 종교인의 공적활동의 참여로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적 참여의 사회적 요구는 그 자체로 사회체제와 힘과 균형의 역학논리에 빠져 실제 체제와 대항하거나, 공적 영역의 보완재로서의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칠 위험이 있다. 일부 폐쇄된 종교의 조직의 공공성의 주장은 자칫 종교의 독단적 교리에 빠져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궤변이 되기도 한다.

전 지구적인 위협의 상황에서 종교가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회의적이다. 역사상 전통 종교가 가지는 종교적인 특수성과 배타성은 국가나 전지구의 공공의 이익에 보다는 전통 종교의 종교적 독단성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근대 이후 절대자로서의 신의 가르침이 사회적 규율이나 원리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절대성과 초월성은 우리 삶의 부차적인 것이 되었고 동시에 이성적이고 성실했던 동서양의 미분화된 상태로서의 초월과 절대와 같은 형이상자(形而上者) 또한 잊혀졌다.

그리고 근·현대 초월과 절대의 경지에 대한 망각으로 인해 ‘초월지경’(超越之境)으로서의 상대적이고 대대적인 것 너머의 유교의 태극(太極)과 무극(無極)에 근거한 공공성 개념의 의미도 역시 우리 기억 속에서 망각되었다. 공(公)은 사(私)의 상대로서 그리고 사(私)는 공(公)의 상대일 뿐, 상대적이고 대대적인 관계 너머의 그 유교적 전통의 공(公) 개념을 근·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인 위기에서 종교의 공공성의 논의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벗어나서 국가 간 경계와 민족적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유의 전제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일

자에 대한 소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 인류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인 기후와 난민의 문제는 전지구적 연대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의 경계로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의제는 다룰 수 없는 한계이다.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 정치와 국가의 국방과 경제 영역에서 구분되는 국경과 경계를 무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견고한 입장의 차이와 경계를 무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무한자 또는 초월자인 일자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인 무한자 또는 초월자인 일자는 경계가 단지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동일자로서의 신의 양태, 변용,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전 지구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 본연의 초월성으로의 회귀는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여러 지적되는 이야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화되어 상대화된 실증주의적 교육의 대안으로 이영찬의 유교적 이성과 유교사회학에 주목하였다. 그는 서구 사회학은 주관과 객관의 분리 이전의 통일체로서의 리(理)를 자각하지 못한 채 “주객 분리에서 출발하여 대상의 경험된 자료만으로 현실을 파악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나 기계적 인과 관계로 행위를 이해하는 행태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Lee, 2001: 186), 유교 사회학이 서구 사회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무극과 태극의 절대성과 초월성 그리고 그것을 근원으로 하는 현실세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서구 근대의 사회학이 아닌 동양의 유교 사회학이라면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 관점에서 논의된 공공성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실세계의 불평등과 차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의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일깨울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고대이후 인류 사상사에서는 절대성과 초월성에 침착해 있는 다양한 방식의 일자가 존재해왔다. 실증적 합리론과 경험론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의 접근은 기존의 이러한 사유체계의 사회학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유교사회학은 초월성의 회복과 관련하여 유교적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종교적, 사상사적 탐색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References

- Beck, U. *Der eingene Gott*. 홍찬숙 옮김 (2013). 자기만의 신. 경기도 파주: 도서출판 길.
- Harari, Y. N. *21 Lessons for 21st Century*. 전병근 옮김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파주: 김영사.
- Schmit, C. *Politische Theologie*. 김항 옮김 (2010). 정치 신학. 서울: 그린비.
- Yeum, S. J. (2017), Study on the Concept and Meaning of religious Publicness, *Won-*

- Buddhism's Thought and Culture*, 72, 7-36.
- 금장태 (2004). 道德: 다과 오규 소라이의 <중용> · <대학> 해석. 파주: 이끌리오. (Translated in English) Kum, J. T. (2004). *Moral*. Paju: Eclio.
- Meng, Peiyuan(蒙培元). *The concepts of Neo-Confucianism*. 홍원식, 황지원, 이상호 옮김 (2011). 성리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 이영찬 (2001). 유교사회학. 서울: 예문서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Y. C. (2001). *Confucian Sociology*. Seoul: Yemoonseowon.
- 이영찬 (2008). 유교사회학의 패러다임과 사회이론. 서울: 예문서원. (Translated in English) Lee, Y. C. (2008). *Paradigms of Confucian Sociology and Social Theories*. Seoul: Yemoonseowon.
- 한자경 (2008).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서울: 예문서원. (Translated in English) Han, J. K. (2008). *The meeting of Buddhist philosophy and modern ethics*. Seoul: Yemoonseowon.
- 한자경 (2009). 자아의 연구: 서양 근 · 현대 철학자들의 자아관 연구. 파주: 서광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J. K. *The Study of the Self*. Paju: Soekwangsa.
- 한자경 (2019). 실체의 연구: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J. K. (2009). *The Study of the Self: History of Metaphysics*. Seoul: Ewhapress.
- Hong, S. T. (2012). Public Sphere, Communication, and Deliberative Politics: The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ness and Its Dynamics of Political Process, *Korean society*, 13(1), 159-195.
- Maruyama, Masao(丸山真男). *Studies in the Intellectual Historie of Tokugawa Japan*. 김석근 옮김 (2011). 일본정치사상사. 서울: 통나무.